

『해설·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

-신약을 중심으로-

김창락

1. 시작하는 말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약 30여종의 해설 성서들이 시판되고 있다. 가히 해설 성서의 홍수 시대라 할 것이다. 대한성서공회도 1997년에 『해설·관주 성경전서』를 번역·출판한 데 이어서 2001년에는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을 번역·출판하였다. 앞의 것은 독일성서공회가, 뒤의 것은 미국성서공회가 제작·출판한 것이다. 각 나라의 성서공회는 성서 자체의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교파 연합 기관이다. 성서공회가 주석서나 신학서적을 출판하는 것은 성서공회의 본령에서 벗어난다. 성서공회는 어느 특정 교파의 성서 해석이나 어느 특정 집단의 신학을 대변하지 않는 것을 그 사업의 근본 강령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십 수년 이래로 세계의 여러 성서공회들이 ‘해설성서’ 또는 ‘학습용 성서’라는 이름의 성서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성서공회의 사업 분야의 새로운 확장이라 할 것이다.

성서를 읽는 것을 미지의 낯선 세계를 여행하는 일에 비길 수 있다. 누구든지 길을 잃고 헤매는 일 없이 미지의 세계를 효과적으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안내서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안내서는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어떠한 안내서가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떤 것이 ‘적절하다/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의 기준도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행의 목표가 무엇이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지의 지역에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의 먼 거리를 자동차로 급히 여행하려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도로 지도가 필수적 안내서이다. 이 경우에 어떠한 지도가 가장 적절한가? 그것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거리 고속 도로가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도이다. 너무 상세한 지도, 예를 들어 A지점에서 B지점 사이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도시들과 연결된 모든 길들이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는 세밀한 지도는 오히려 헷갈리게 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러나 중간에 놓여 있는 모든 도시의 시내를 경유하여 여행하려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상세한 지도가 적절할 것이다. ‘간략함’이라는 효용성에 대한 기준도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급히 이동하려는 여행자에게도 그 두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 고속 도로만을 표시해 놓은 지도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고속 도로에서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경우에 따라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군데군데 셋길 정도는 최소한 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출간된 모든 종류의 해설 성서들의 외형적 특징의 공통점은 이들은 읽기에 불편이 없는 활자체로 인쇄되어 있으면서도 휴대하기에 간편한 신구약 성경전서의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다. 이 외형적 특징은 간결성이라는 분량상의 특성도 어쩔 수 없이 생기게 했다. 이리하여 이들은 모두 성경을 이해하면서 빨리 통독하려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학습용 성서로서의 형식적 요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 그러나 거기에 담긴 정보 내용이 질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에 속한다.

이 글의 목적은 모든 해설 성서의 내용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지 않고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두 해설 성서의 내용을 비교·검토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다만 이 두 해설 성서가 공통적으로 채택한 성서연구 방법론이 나머지 모든 해설 성서의 그것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 두 해설 성서는 역사비평적 연구방법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한 최대한의 일치점을 반영하려고 했다. 이와 달리 나머지 해설 성서들은 역사비평적 연구방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성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는 독자에게 각 성서 문서의 성립과 관련된 역사비평적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가 유용하나 무익하냐는 논쟁은 끝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다음 사실만을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한다. 어떤 문구의 의미가 그 전후 문맥 속에서 비로소 확연히 드러나듯이 어떤 성서 문구의 의미는 그것의 문학적 문맥뿐만 아니라 그 문서가 성립된 역사적, 문화적 맥락 속에 넣어서 바라볼 때에 그 본래적 의미가 올바르게 드러난다. 성서를 해석하는 데 역사비평적 연구방법을 완전히 차단하면 성서의 내용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범람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설령 그러한 정보들이 독자의 '경건성'을 북돋우는데 일시적으로 효험이 있다 하더라도 학문적 진실에 바탕을 두지 아니한 효험은 원대한 전망에서 바라볼 때에 어느 면에서든지 언젠가는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것이다.

대한성서공회가 발간한 두 해설 성서는 단순히 여러 해설 성서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해설성서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취하는 무비평적인 연구방법에 제동을 걸고 해설성서 제작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해설 · 관주 성경전서』와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의 구성

『해설 · 관주 성경전서』(아래에서는 『해성』으로 함)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 앞에 서론부가 있고 뒤이어 본론부가 나오며 맨 끝에 부록이 붙어 있다. 서론부에는 발간사와 머리말, 이 책의 편성과 제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러두기 말, 구약목록과 신약목록, 성경과 외경 각권의 약자표가 실려 있다. 본론부는 『해성』의 중심 내용을 구성하는 부분이다. 각 문서마다 맨 앞에 그 문서의 핵심 내용과 그 문서의 성립에 관한 역사, 그 문서의 주요 구조를 소개하는 안내가 나온다. 본문에 대한 해설은 문단 단위로 나뉘어 붙여져 있다. 부록편은 도량형 및 화폐 단위의 환산표, 용어 해설란, 성경 약사 연대표, 본문 비평 주, 지명 찾기 색인, 지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굿뉴스 스테디바이블』(아래에서는 『스바』로 함)도 서론부, 본론부, 부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스바』의 서론부에는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다. 발간사, 목차, 성경 및 외경 책 이름의 약자표, 여기저기 수록된 지도의 목록, 책의 편성과 제작에 관한 정보, 성서 세계의 역사 개요표, 성경 각 책의 이름과 순서가 나온다. 『스바』의 우리말 번역본에는 우리말 번역 성서의 역사,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 해설이라는 두 개의 유익한 글이 실려 있다. 『스바』의 본론부는 『해성』의 그것과 비교 할 때에 그 구성과 해설 방법이 상당히 다르다. 『스바』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개별 문서를 해설하기에 앞서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전반을 해설하는 구약개론과 신약개론을 실었다. 그 뿐만 아니라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주요 장르별 문서 집단을 묶어서 소개하는 글이 있다. 『해성』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그렇게 묶어서 소개했지만 『스바』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 개별 문서 앞에 그것을 소개하는 글은 『해성』의 그것과 거의 같다. 다만 본문을 해설하는 방법은 『해성』과 전혀 다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보기를 들어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스바』는 부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책 끝에 찾아보기와 용어해설을 붙여놓았다. 찾아보기는 주요 낱말이나 어구가 성서의 어디에

있는지를 찾게 하는 색인 사전의 구실을 한다. 『해성』에는 이것이 없는 대신에 지도상의 지명 찾아보기 목록이 있으며 『스바』에는 『해성』에 있는 이것이 없다.

2. 『해성』과 『스바』의 비교

2.1. 해설 방식

『해성』과 『스바』는 각각 본문 해설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다. 마태복음 5-7장의 해설을 본보기로 들어보자.

『해성』은 본문을 의미 단위의 단락으로 나누어 제시해 놓고 매 단락마다 그 끝에 해설을 덧붙여 놓았다. 단락 나누기는 미국 연합 성서공회가 발행한 『그리스어 신약성서』(*The Greek New Testament, UBS⁴*)를 거의 그대로 따른다. 우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아홉 단락, 즉 1-12절(이 점에서는 『그리스어 신약성서』가 1-2절과 3-12절 두 단락으로 나눈 것과 약간 차이가 있음), 13-16절, 17-20절, 21-26절, 27-30절, 31-32절, 33-37절, 38-42절, 43-48절로 나누어 놓고 매 단락 끝에 해설이 붙어 있다. 『스바』는 단락 나누기에 있어서는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꼭 그대로 따른다. 그렇지만 『스바』가 해설을 붙이는 방식은 『해성』과 전적으로 다르다. 『스바』는 매 단락을 독립된 의미 단위로서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바』는 해설을 각 단락마다 나누어서 붙이지 아니하고 해설이 필요한 구절에 대해서 각주에다 차례로 해설을 붙여 놓았다. 그 대신에 『스바』는 어느 한 단락 또는 몇몇 단락들 앞에 그 한 단락 또는 몇몇 단락들 안에 무슨 사항이 담겨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글을 실어 놓았다. 또 마태복음 5-7장은 ‘산상설교’라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묶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5-7장 전체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이 맨 앞에 나온다. 즉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전체 속에 들어 있는 다섯 개의 긴 설교 가운데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 그 내용은 새 언약 공동체를 위한 하나의 통일된 지침으로 되어 있는데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의 성격, 책임, 특권 그리고 운명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성』은 『스바』와는 달리 여러 단락들이 하나의 상위의 의미 단위로 묶여진 큰 단원의 내용을 해설하는 난(欄)을 별도로 설정하지 아니했다. 그 대신에 이 큰 단원을 소개하는 말은 그 단원의 맨 처음 단락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언급한다. 보기를 들면 『해성』은 마태복음 5장 1-12절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산상설교(5-7장) 전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해설한다. 즉 산상설교는 무리를 겨냥한 것이지만 동시에 전체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으며 최종으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겨냥한다는 것, 산상설교가 요구하는 것은 침입해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에 직면하여 요청되며 가능하게 되는 태도이고 이러한 태도는 오직 예수의 부르심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와 연합함으로써만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 가지 보기를 더 들면, 마태복음 5장 21-48절은 여섯 단락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른바 여섯 대립명제를 말한다. 『스바』는 이 여섯 단락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소개하지 아니하고 이 여섯을 하나의 의미 단원으로 취급하여 간략하게 소개한다. 즉 이 단원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의 가르침을 능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율법이 금하는 특정 행위를 멀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와 같은 죄 된 행위를 유발시키는 내적 동기와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해성』은 여섯 대립명제의 첫째 단락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여섯 대립명제의 신학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이른바 ‘대립명제’(5:21-48)는 여섯 개로 구성되었는데 세 대립명제가 두 조로 짜여 있다. 여기서 예수는 모

세가 명한 것을 부분적으로는 심화시키기도 하고(22, 28절), 또 부분적으로는 교정하거나 폐기시키기도 한다(32,34,39,44절). 이로써 예수는 모세의 권위를 능가함을 드러낸다.

『스바』는 그 진술 원칙을 어긴 경우도 있다. 원칙대로 하면, 마태 5:1-12절의 단락과 13-16절의 단락 앞에 각각, 또는 그 두 단락을 한 단원으로 취급하여 그 앞에 그것을 소개하는 글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다.

『해성』과 『스바』의 해설 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까? 해설을 관광 안내원에 빗대어 보자. A라는 안내원은 출발에 앞서 관광객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해 준다. “지금 우리는 아무 곳에 가는데 거기에 가서 무엇, 무엇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B라는 안내원은 관광객들에게 관광 현장을 먼저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러한 것이고 이러이러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A 안내원과 B 안내원은 각각 『스바』와 『해성』의 해설 방식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해설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스바』의 방식은 독자들이 하여금 앞으로 읽을 본문 속에 담겨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를 예상하고 읽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대의 파악을 용이하게 한다. 『해성』의 방식은 이미 읽은 단락 전체의 신학적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하게 해 준다. 이 편의 장점은 저 편의 단점이 되고 저 편의 단점은 이 편의 장점이 된다.

『스바』와 『해성』은 본문비평적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다. 『스바』는 해당 구절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본문비평적 다른 읽기를 제시한다. 보기를 들면 마태복음 6:4의 “값이시리라”에 “공개적으로”라는 어구를 첨가한 사본이 있음을 밝힌다. 이와 달리 『해성』은 본문비평적 다른 읽기를 부록에 따로 모아 제시해 놓았다. 『해성』은 본문비평적 주(註)를 극도로 제한했다. 마태복음에서는 18장 9절까지 오직 5장 44절에만 다른 읽기를 제시해 놓았다. 『스바』가 채택한 방식이 독자들이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다 할 것이다. 『해성』의 독일어 대본은 본문비평적 주가 나오는 곳을 o표로 표시해 놓았으나 우리말 번역에는 그 표시가 누락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본문이나 해설을 읽으면서 다른 읽기가 제시된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관련구절은 본문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 안에 표시되었다. 『해성』은 여기에 추가되는 부분을 매 쪽 하단에 제시해 놓았다.

2.2. 해설 내용

해설 성서의 질적 차이를 평가하는 데 고려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설의 내용이다. 『해성』과 『스바』는 해설의 방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설의 내용도 달라지게 되었다. 『스바』는 매 절을 떼어서 해설을 하면서 낱말, 어구, 문장의 의미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다. 따라서 『스바』는 한 단락 전체의 종합적 의미보다는 그 단락을 구성하는 각 절의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잘 드러낸다. 이와 달리 『해성』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낱말, 어구, 문장의 의미를 밝히기도 하지 마는 그보다는 단락 전체의 종합적 의미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두었다. 우선 팔복 선언(마 5:1-12)과 주기도문(마 6:9-15)이 나오는 단락을 본보기로 들어보기로 하자.

『해성』은 팔복 선언 단락의 전체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산상설교의 맨 처음에 여덟 가지 구원 선언이 나온다(3-10절). 이 구원 선언은 듣는 사람들에게 하늘 나라, 즉 하나님의 새 세계에 참여를 약속한다. 동시에 여기에는 자기의 자세나 태도를 통해서 이 약속에 상응하라고 하는 절박한 요구가 내포되어 있다.” 『스바』에는 팔복 선언 전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말이 없다. 『스바』는 3절을 해설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열망함으로 천국 시민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풀이하고 “복이 있는”을 “한편으로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남을,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기쁨을 동반한, 행복하거나 즐거운 상태에

놓여 있는”을 뜻한다고 풀이해 놓았다. 『해성』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가난한 사람들(3절)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이들의 가난이 그들 주변의 몰인정한 소유욕의 결과인 이상 하나님은 옛날부터 가난한 사람들의 특별한 변호자였다. 그들이 곤궁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소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점점 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삶의 충족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는 이상 그들은 그들의 편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강렬한 관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한 이들의 경건성’이라는 독특한 사상이 발전했다(시37편; 34:19; 69:33-34 참조. 또 사57:15; 61:1-2; 습2:3; 3:12의 약속들 참조; 눅1:46-55를 보라). 행복 선언의 첫째 항에서 이런 유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을 건다(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 첫 항목은 말하자면 전체 행복 선언의 제목과 같다. 4:10절에서, 특히 4:6절에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이 고려되고 있다(관련구절 참조).”

『스바』는 6절의 ‘의’라는 낱말의 뜻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의 네 번째 가르침으로서, 여기서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함”으로 풀이했다. 『해성』은 ‘의’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의(6:10절)는 하나님 또는 그의 메시아가 세우실 포괄적인 구원 질서를 뜻한다(사9:5-6; 렘23:5-6; 33:15-16 참조). 이 의는 동시에 이 구원 질서에 대응하는 인간의 태도를 의미한다(3:15와 해설 및 6:33 해설 참조).”

주기도문의 해설은 『해성』과 『스바』의 내용상 차이점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스바』는 주기도문을 해설함에 있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9절)와 “일용할 양식”(11절)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12절)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13절)라는 어구의 뜻을 간략하게 제시할 따름이다. 이와 달리 『해성』은 우선 주기도문의 전체적 의의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주기도문은 이미 외적으로 그리고 바로 내적으로 산상설교의 중심이며 핵심이다. 산상설교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이 바로 이 기도의 정신에 마음을 열고 이 기도의 정신에서 살기 시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만 가능하다.”

『해성』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았다.

“예수는 이 기도에서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셨으로써 자기의 독특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제자들을 끌어들이신다(용어해설에서 ‘아바’ 참조). 이로써 예수는 제자들의 삶을 하나의 새로운 토대 위에 세우시며 그들을 특별히 은총을 입은 자들과 사명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로 결속시키신다.”

주기도문을 해석함에는 거기에 담긴 청원 하나 하나의 의미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처음 세 청원이 동일한 종말론적 구원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스바』도 이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언급한다. “처음의 세 기원(6:10 끝까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천국 시민은 모든 사람이 그 분을 전능하신 주로 인정하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길 바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해성』은 이 점을 아주 상세하게 진술한다.

“제자들이 청원해야 할 본래적인 첫째 관심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비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가 세상에서 회복되는 것,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 것을 뜻한다(‘거룩하게 되다’라는 수동태 표현은 하나님의 행위를 우회적으로 경건하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한국어 『구역성경』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가 더 정확한 번역에 속한다. 겔36:23; 38:23 참조. ‘거룩하게 하다’=‘거룩한 것임을 입증하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이 에수를 통하여 알리시고 이미 시작하신 것을 완전히 실행시키심으로써 일어나야 한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나라가 임하는 사건에서 이루어진다(둘째 청원, 4:17 참조). 셋째 청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내용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펼친다. 셋째 청원에서 비는 것은 종말론적 완성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이 종말적 완성은 지금 벌써 좀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의 삶 속에서 그러했듯이(3:15; 12:28; 26:42 참조)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역시 감지될 수 있어야 한다(5:1-48; 7:21; 10:1; 12:50; 18:14 참조).”

『해성』은 나머지 세 청원의 의미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설명한다.

“9-10절이 하나님의 명예와 그의 나라에 대한 청원이라면, 뒤따르는 청원들은 제자들의 공동체 생활에 관한 것이다. 즉 나날의 생계와 이 세상에서 생존하기(11절, 19-34절 참조)와 다가올 심판에서 이겨나기(12절, 18:21-35 참조)를 비는 청원이다. 13상반절(“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은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난국 속에서, 시험(=유혹)에 빠지는 것 및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는 것에서 지켜달라고 청원한다(10:16-25; 24:3-28; 26:41 참조). (하나님이 그러한 시험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은 약1:13-14가 말한다.) 13하반절(“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은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여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처럼 들린다(약은 ‘악한 자’로 번역할 수도 있다. 13:19와 딤후4:18 참조).”

끝으로 용어 해설의 항목 수와 해설의 길이가 『해성』과 『스바』에서 어떠한지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해성』의 용어 해설은 32 쪽 반에 걸쳐 있는데 『스바』는 겨우 17 쪽을 여기에 배당하고 있다. ㄱ 부의 항목 수와 쪽 수는 『해성』이 81 항목에 9 쪽이고 『스바』가 34 항목에 1 쪽 반이다. ㅎ 부에서는 『해성』이 36 항목에 7 쪽이며 『스바』는 29 항목에 1 쪽 반이다. ㄱ 부와 ㅎ 부를 합해 보면 『해성』은 117 항목에 16 쪽이며 『스바』는 63 항목에 3 쪽이다. 『해성』의 항목 수가 『스바』의 그것에 2 배쯤 되는 셈이다. 이 16 쪽과 3 쪽을 각각 행(行) 수로 계산하면 『해성』은 약 630 행이 되고 『스바』는 약 126 행이다. 『스바』는 한 항목 당 평균 2 행의 해설을 붙였는데 『해성』은 약 5.4 행의 해설을 붙였으니 해설의 분량도 약 1:3이 되는 셈이다. 신학적으로 의미가 중요하고 복잡한 것일수록 이 비율이 늘어남은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항목을 본보기로 들어보자.

『스바』에는 이 항목에 겨우 12 행이 배당되었는데 『해성』에는 무려 127 행이나 배당되었다. 『스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어떤 다른 세계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이 낱말은 그 말이 쓰이는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인지,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오고 있는 그의 통치를 가리키는지, 혹은 그의 통치가 장래에 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어떤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마태는 다른 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하늘 나라”(개역: 천국)라는 말을 선호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바』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가 어떤 영토를 뜻하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며 문맥에 따라 그것이 현재적 현실을 가리키기도 하고 미래적 현실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을 설명할 따름이다. 이와 달리 『해성』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전승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성립 초창기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표명한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시는 -- ‘임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부터 하던 신앙 고백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셔서(출15:18) 광야를 거쳐서 이끄시고 가나안 땅 곧 여러 이방 민족의 나라들(시44:1-5)을 그들의 소유로 주심으로써 자기의 이 왕권을 근본적으로 드러내 보이셨다...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적들에게서 지켜주시고(시44:4-8; 48편; 68:24-35; 135편; 146편)...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과 의가 이스라엘에 통하게 하심으로써(미23:21-24; 신33:2-5; 시99:1-4) 하나님의 왕권을 계속해서 또 늘 새롭게 드러내 보이신다...이 왕권은 온 누리를 위한 것이고 언젠가는 온 누리에 드러날 것이다(시47편; 96-99편; 103:19-22). 하나님의 왕권은 아주 현실적이며 세상사적으로 구체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우선 이스라엘에서 다른 민족들을 본떠 어떤 한 사람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에(삿8:23; 삼하8장) 이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한 사람(그리고 그의 왕조)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과 세상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통치의 대리자 겸 실행 기관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이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삼하7:14-16; 대상 28:5; 29:23; 대하 9:8; 13:8; 시2편; 72편; 89:15-37; 110편; 132:11-18).”

『해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극심한 민족적 대 비극을 잇따라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현재 임금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고, 민족적 불행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언젠가는 몸소 역사에 개입하셔서 자신이 자기 백성의 임금이자 모든 민족의 주이신 것을 다시 결정적으로 드러내시리라는 종말론적 희망이 점점 더 강렬하게 대두하게 된 역사적 경위를 설명한다. 이러한 희망은 다음과 같은 두 가닥의 기대로 표출되었다고 한다.

“이리하여 사람들은 출애굽에 상응하는 새 ‘출애굽’을 기대했고(사35:1-10; 40:1-11; 52:11-12),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사2:1-5; 25:6-8; 52:7-10; 60장; 66:5-24; 겔40-44장; 미4:6-8; 숙2:14-17), 무엇보다도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타나심으로써 다윗 왕권이 마지막 때에 새로워지고 완전해질 것을 기대했다(사9:2-7; 11:1-10; 렘23:1-6; 겔 34장; 37:15-58; 암9:11-12; 미5:2; 숙9:9-12). 그렇지만 이런 희망은 이스라엘의 과거에 있었던 ‘모형들’을 바라보는 데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초기 유대교 묵시문학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인류 전체를 위해 개입하셔서 이 세상 및 세대를 끝장내시고 아주 새로운 세상 및 세대를 이끌어 들이실 것을 기대했다 (『다니엘』 안내를 보라). 이런 희망의 개념에서는 인자라는 존재가 표준적인 역할을 한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 형태의 미래 희망이 -- 이스라엘의 위대한 과거를 지향하고 민족적 정치적인 성향을 강하게 띠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기대를 거는 희망과 묵시문학적인 희망이 -- 나란히 존재했고 또한 이런저런 혼합 형태로 존재하기도 했다.”

『해성』은 예수의 선포와 활동은 바로 이 묵시문학적 종말적 희망에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시는 일이 다했다고 선포하셨다면(막1:15), 이는 분명히 묵시문학적인 뜻을 띠는 것이지, 민족적인 기대로 이해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이 오해의 여지가 적은데, 왜냐하면 ‘나라’라 하면 경계가 있는 국토나 국가 비슷한 기관이나 통치 형태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너무 정적인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너무 쉽사리 ‘하늘’에 있는, 피안적인 실체로 그려지게 된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늘 나라’라고 하지만, 이 경우에 ‘하늘’이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뜻으로 예둘러 표현하는 대치어일 따름이다. 하나님이 임금으로 다스리심에 대하여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특징은 그 다스리심이 바로 지금 급박하게 가까웠다는 것이다. 묵시문학적 기대에서 뜻하는 그런 다스리심이 곧 동터 오리라는 사실이 예수님께는 확실했다(막1:15; 눅10:9,11; 막9:1; 13:30. 그렇지만 막 13:32-37 참조). 그렇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새로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임금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예수께서 더 이상 장래의 일로만 여겨 기다리지 않으시고, 지금 벌써 -- 그의 말씀과 행위 안에서, 그의 현존 안에서, 그의 인격 안에서 -- 침입해 오고 있음을 보신다는 사실이다(눅11:20; 마 11:1-6; 13:44-46).”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의 이 선포를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한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 그가 선사하시고 요구하시는 일을 철저히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마음을 열고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 안에서 인자가 이미 나타나셨다. 따라서 이 세상의 끝이 정확히 언제냐를 물을 필요가 없다. 이 세상은 예수님 안에서 -- 아직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만 -- 이미 끝에 이르렀다! 이 끝은 -- 그리고 새 세상의 시작은 -- 또한 눈으로 보고 감촉으로 느낄 수 있게 나타나리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점을 열망하고 간구해도 괜찮다(눅11:2; 17:22; 21:28). 그러나 그 시점을 계산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결정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소홀히 한다는 혐의를 받거나 그렇게 할 유혹에 빠지게 된다. 결정적인 것이란 곧 예수 안에서 이미 현재가 된 것(눅17:20-22)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과 ‘이미 그리고 아직도 아님’의 성격을 지닌 이 때를 위하여 제자들이 하도록 위탁받은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이 예수의 ‘대조의 비유’ 속에 이미 표출되어 있다는 것과 공관복음에서 예수의 선포의 중심 주제였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후대에 와서 배후로 밀려나게 된 경위를 설명한다.

“예수님의 경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현재와 미래가 서로 어떻게 관계되는지는 이른바 “대조의 비유들’에서 알 수 있다(막4:3-9,26-29,30-32; 마 13:33). 처음 세 (‘공관’) 복음서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예수님의 선포에서 표준적인 역할을 한다. 신약성경의 다른 책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 허락된 구원과 그 구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전망과 결과를 이해하고 선포하는 문제를 주로 다루므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다른 중요한 개념들의 배후로 밀려나게 된다(그렇지만 요3:3,5; 18:36; 행1:3,6; 14:22; 28:23,31; 롬14:17; 고전4:20; 6:9-10; 15:24-28,50; 갈5:21; 엡5:5; 살전2:12; 딤후4:1,18; 히12:28; 약2:5; 벧후1:11; 계 1:9; 11:15; 12:10 참조).”

위의 본보기를 통하여 본 바와 같이 『해설』의 용어 해설은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인 경우에 단순히 낱말의 개념을 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시적인 시각에서 신학 사전과 같이 상세하게 해설한다.

『해성』과 『스바』가 신구약성서의 각 문서에 대하여 개론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역사비평적 연구의 공통적 결과를 수용하여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합치한다. 이 둘에서 우리는 나머지 모든 해설 성서가 성서의 각 문서에 대하여 제시한 정보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기를 들면 현재 형태의 모세 오경을 형성한 배후에 이른바 J, E, P, D라고 하는 자료층이 존재했다는 것, 현재 형태의 이사야서는 약 400년에 걸쳐서 쌓인 여러 전승층들의 편집으로 형성되었다는 것, 공관복음서의 성립에 대하여 이른바 두 자료설을 인정하는 것, 바울의 서신을 진정 서신과 후기 바울 서신으로 구분하는 것 등등이다.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적 연구의 불모 지대인 우리 나라의 성서 연구의 풍토에 이 두 해설 성서가 참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3. 맺음말

『해성』과 『스바』를 비교해 본 것은 우열을 판가름하거나 양자택일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 둘 사이에 차이점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각각 장점인 동시에 단점도 되는 것이지 전적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단점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어떤 사항에 대한 해설이 간략하면 그 간략성이 이해를 용이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며 동시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단점도 되는 것이다. 상세한 해설은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며 동시에 그 복잡성이 손쉽게 이해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이 되는 것이다. 『스바』의 해설은 간략하며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해당 자리에 관련된 지도를 제시한 것은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본문을 단락별로 나누어 그 속에 담긴 좀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성』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해성』과 『스바』를 나란히 놓고 상호보완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성서 연구 방법이 될 것이다.